

#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산 스테이크 부장  
민 혜 기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 15: 11) 말씀하셨습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곧 생각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부도덕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자연히 우리의 행동도 부도덕하고 순결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잠언에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 23: 7)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상하고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성품도 유덕하고 아름다움과 사랑과 선한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고상하

고 아름답게 되고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박하여지고 더러워져서,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결치 못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 11-12) 즉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인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계명과 모든 원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리와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계의 것을 자연계의 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

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참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그분께 간구하는 것을 그분은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마 7:9-10)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감당치 못함으로써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지니라”(고전 3:2)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감당치 못함으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여 어른이 될 때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험담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판 외에도 우리는 불의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2)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비판을 하려는 우리 인간의 심리를 간파하시고 비판하느니 보다는 오히려 옹호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그 행위에 대해 추측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동기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일들이 순수한 동기에서 행해졌을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목표나 소망을 잘 알지 못하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꼬집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풍문을 듣고 함께 수군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릅니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태도를 밝힘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도 그러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하신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한다면 이웃을 헐뜯는 소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태도와 언행을 절정하여 의로운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로운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의로와질 것입니다. 쉬지 않고 덕으로 우리의 생각을 장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신임이 두터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의 일을 비난하는 것이 되어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되기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동경 신전장 앤더슨 장로 한국 방문



서울과 인천에서 모인 800여 명의 성도들은 5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스테이크 제4와드에서 동경 신전장인 앤더슨 장로의 말씀을 들었다.

이날 모임에 5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과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와 한인상 장로 그리고 김 차봉 선교부장과 클레멘트 선교부장 부처가 참석하였다.

한국 물몬 합창단은 이 모임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주었다.

앤더슨 자매는 합창을 듣고 난 후에 합창단원들의 재질을 칭찬하면서 간증을 전해 주었다. 앤더슨 자매는 가족과 함께 신전에서 의식을 행하는 동안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 등을 부모들이 가정의 밤을 통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가정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어서 앤더슨 신전장은 신전없이 영원한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인류는 신전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였다. 침례받기 전 선교사와 공부하는 것

은 유치원 공부나 마찬가지로이며 전도소나 지부에 속하여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국민학교 교육과 같으며, 와드나 스테이크는 고등학교에 그리고 대학에서 차원 높은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이 신전을 대학 과정에 비유하여 말씀하였다. 신전에서 배울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지식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필요한 율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면,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지도자를 지지하며 완전한 십일조와 지체의 말씀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조상을 위한 계보 사업을 하여 신전의 의식을 받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끝으로 한국에도 신전이 세워질 때 많은 역원과 그곳에서 일해야 할 회원이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가정 생활을 재정비하여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 기꾸찌 장로 송별 모임



남은환(左) 기꾸찌 장로(中)와 이호남 장로(右)



신선환(앞) 인사로 대우한 기꾸찌 장로(중앙)

총관리 역원인 기꾸찌 장로 송별회가 서울 동 스테이크 제1와드에서 6월 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온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고 원용동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모임에는 기꾸찌 장로 내외분과 지역 대표인 이호남 장로와 한인상 장로를 비롯하여 서울과 인천의 각 스테이크 부장단 그리고 선교부장단이 참석하였다. 또한 한국물론 합창단도 참석하여 모임을 더욱 빛

내 주었다. 기꾸찌 장로는 연단에 서서 그의 사랑과 간증을 한국어로 표현하려고 애썼다. 그는 니파이 삼서 15장 21절과 16장 1절을 요약하면서 한국 백성이 바로 순수한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전세에서 지상에 오기 전에 하늘의 부모께서 고유의 의상을 지어 주셨고 또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한 실천이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며 참된 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젊은이들에게 복음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도록 권고하였고 한국 성도들과 함께 "애국가"와 "보리밭"을 합창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기꾸찌 장로는 자신이 한국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 번 전하였고 뜻내 이별을 아쉬워 하였다. 최옥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의 폐회 기도로 모임을 마친 후, 참석했던 성도들은 기꾸찌 장로 내외분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

## 광주 스테이크 헌혈 행사 참여

광주 스테이크는 6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1와드에서 30여 명의 성도들이 헌혈 행사에 참여하였다. 박 하천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와드, 지부에서 모인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피를 뽑아 주었다.

비록 적은 수의 성도들이 참여하였지만 약 9,600cc의 피를 광주 적십자사에 헌혈하였다. 이같은 사실이 광주 일보 6월 8일자 종교계 단신란에 게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

## 서 전주 지부 초등협회 진 승태 형제 금메달



태권도 선수인 진 승태 형제는 1982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주 시내에 있는 전주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검사장 컵 쟁탈전에서 출전하여 B조 플라이급에서 1위를 차지하여 금메달을 받았다. 진 형제(2단)는 현재까지 4년 동안 태권도를 익혀 왔으며 1981년 4월 18일에는 태권도 전복신인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핀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1981년 11월 19일에는 전북 중별 개인 선수권 대회에서 플라이급 금메달을 받기도 했다. 진 형제의 부모는 모두 교회 회원이며 부친은 현재 서 전주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피크닉



6월 18일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소속 와드, 지부의 자매들을 위하여 도봉산 다락원에서 즐거운 야유회를 가졌다. 쾌적한 날씨와 푸른 숲속에서 즐거운 노래와 게임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이 인호, 최 영숙 선교사들이 사회를 맡았다. 오랫동안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매들은 손수 만든 음식과 다과를 나누며 우정을 나누었다.

## 서울 동 스테이크 교문 지부 조직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6월 20일 그동안 서울 선교부 산하에 있던 교문리 전도소를 교문 지부로 승격시켰다.

1982년 3월에 전도소로 개설된 이후 먼목 와드의 지원을 받아 급속히 성장한 교문리 전도소는 한 영민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부로서의 첫발을 내디디며 와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1보좌에 정 순권 형제, 제2보좌에 박용태 형제, 지부 서기에 이 성희 형제가 부름받았다. \*